벤처창업연구 제18권 제2호 (통권86호) ISSN 1975-7557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8 No.2 pp.141-156 e-ISSN 2671-9509

스타트업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액셀러레이터 역할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용태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허철무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정부와 민간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규모의 확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스타트업을 롤모델로 삼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공을 경험으로 연쇄창업을 도전하는 창업자와 달리 초기 스타트업들은 팀원 채용, 기술 개발, 자금 유치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 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총 11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증연구를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종사자들 302명에게 설문을 받았으며,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제도적인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핵심주제어: 스타트업의 특성,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창업성과

Ⅰ. 서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초기투자 등의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와 투자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정보와 기술,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며, 성장을 위한 투자자와의 매칭까지 도와준다.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은 직/간접적으로 액셀러레이터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액셀러레이터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해외 연구에 기초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소수 연구를 살펴보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위주의 연구로 진행되었고, 대부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매개변수로 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력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가에 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중에서 스타트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국내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스타트업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주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보다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내부 구성원들의 역할에 더욱 초점을 두고, 스타트업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특성, 창업성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의 개념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 수립과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mykim5050@gmail.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cmheo@hoseo.edu
· 투고일: 2023-03-14 · 1차 수정일: 2023-04-10 · 2차 수정일: 2023-04-15 · 게재확정일: 2023-04-24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과 경쟁가치모형(CVF=competing value model)으로 조합하였다. 자원기반이론은 Penrose(1959)가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전략경영 관점으로 소개했으며, Grant(1991)는 “외부환경 보다는 경쟁우위가 기업들간 수익 차별화의 핵심 원천이며, 기업의 내부자원과 역량은 기업전략의 방향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기업 수익의 기본 원천”이라고 하였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내부 구성원의 인적 자원 역량을 차별화하여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창업가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가치모형(CVF)에 따르면 조직들은 대부분 내부의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데(Cameron & Quinn, 1999), 그 조직문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다(Bititci et al., 2004)는 것이다. 조직문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 욕구, 요구 등과 부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조직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생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의 역량과 특성을 활용하여 창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Groysberg et al., 2019). 이 두 이론을 근거로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올바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자료는 많이 있지만 스타트업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관련 선행연구는 이에 비하여 적다.

Christiansen(2014)은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참여한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80% 이상의 보육기업이 성과를 창출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Cohen et al.(2019)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내 146개에 달하는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데이터와 100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김상철(2022)은 한국 내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345명의 보육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와 초기투자 네 가지의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2.1.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신기술, 트렌드, 디자인, 인문학적 요소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 부족한 인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특성을 가진다(이창은, 2021). 이러한 스타트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생존하지 못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주로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지원은 기술 지원, 시장 판로개척 지원, 금융 관련 지원, 네트워크 지원이며,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Clarysse & Bruneel, 2007). 이동기(2022)는 혁신성, 학습 지향성, 네트워크 지향성, 재무적 특성과 글로벌 지향성을 스타트업의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남영현(2021)은 지식공유, IT 지원, 흡수역량, 창의성을 스타트업의 내부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동기(2022)와 남영현(2021) 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특성을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으로 정의하였다.

2.1.1. 혁신성

혁신이란 과정부터 결과까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Jiménez-Jiménez & Sanz-Valle, 2011). 혁신성은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기업의 관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Calantone et al., 2002). 스타트업의 기술혁신 의지는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창업성과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채주석·박상석, 2019). 혁신성은 스타트업과 전통기업을 구분하는 큰 특징 중 하나이다. 다수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이동기, 2022). 창업자 및 경영자의 혁신성, 조직 구성원의 혁신성이 높아질수록 재무적 성과도 높아지고, 외부 네트워크 관리 활동도 활발해진다.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에 유리하므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철희, 2022). 혁신성은 스타트업에 신규 아이디어와 프로세스 등을 도입하는 능력이며(Hult et al., 2003). 스타트업의 성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남영현·서영욱, 2020). 스타트업 조직내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조직문화 필요하다(신진교 외, 2009). 혁신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의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한다(김일천 외, 2004).

2.1.2. 조직문화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Tylor(1958)는 예술, 지식, 도덕, 법률, 관습, 종교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복합적으로 습득한 다양한 습성과 능력을 문화라고 하였다. 복합적이고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인 문화가 조직에 적용되어 발현되는 것을 조직문화(organization culture)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조직에 속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념, 가

치, 행동 규범 등을 통칭한다. 조직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는 행동 규칙의 체계로(Deal & Kennedy, 1982), 조직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Pisano, 2019).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계승되는 조직문화는 조직 내·외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경화, 2023).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에게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과 재량권 등을 부여하였을 때 조직성과와 직무만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박희봉 외, 2019). 박덕환(2020)은 동적자원기반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3,700개 중소기업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IT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연구'를 통해 조직문화와 창업성과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창업자들과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조직에 속한 전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Kotter, 1996).

2.1.3. 재무적 특성

창업초기 스타트업은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자금의 부족과 실패의 위험을 겪는 경우가 많다(Auerswald & Branscomb, 2003). 일반 창업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매출을 내고, 유·무형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킨다. 이후 기업이 적정한 성장을 한 상황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스타트업은 매출이 없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액셀러레이터 혹은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재무적,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여유 자원을 확보하는 재무적 특성이 있다(이동기, 2022). 스타트업은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한다. 조달한 자금은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위해 사용되어 성과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반복한다(정혜윤, 2022).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는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강원진 외, 2012).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원은 혁신적인 위험추구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창업자와 경영자들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제공한다(옥지호·백유진, 2015). 특히 재무적인 여유 자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며,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난관을 극복하는 도움이 된다(George, 2005).

2.1.4. 네트워크 지향성

네트워크는 다수의 기업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성한 기업 간의 협력관계이다(Maggio & Powel, 1983). 자원기반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외부의 자원까지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이광철, 2023),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이 네트워크 지향성이다(김현미, 2015).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방향성 및 목표 수립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Ganesan, 1994).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는 무작위로 전달되므로(Cooper, 1993), 사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이승배, 2013). 네트워크에 속한 관계 기업들은 경영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관계성을 통하여 기술, 제품, 서비스, 노하우 등을 교환한다(Hsu et al., 2007).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강도는 네트워크에 속한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빈도, 친밀도, 관계 등을 뜻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파트너들이 보유한 자원, 지식, 기술, 브랜드 등의 유무형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Nahapiet & Ghoshal, 1998). 네트워크 지향성은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내부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이상묵, 2018).

2.1.5. 학습 지향성

학습 지향성은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이다(Slater & Narver, 1995). 고객과 시장의 니즈, 트랜드의 변화 등과 같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 공유, 활용하는 활동이다(Hurley & Hult, 1998). 학습을 통해 경쟁기업보다 빠르게 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이숙영·문송철, 2011). 조직의 가치를 창출하고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이해광, 2012) 학습 지향성은 스타트업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몰입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며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상길, 2018). 경영자의 학습 지향성은 조직의 학습 지향성에 영향을 끼치며,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준다(윤성차, 2018). 학습 지향성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조직적 방향성이며(이주연, 2020), 스타트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스타트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활동이다(이태규, 2021).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학습 지향성이 필요하다.

2.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액셀레이터(Accelerator)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난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한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가 2005년 미국 실리콘벨리에 설립되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면서, 와이콤비네이터의 스타트업 육성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최중빈, 2019).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 투자, 자원 연계 등 밀착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실패율과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액셀러레이터는 기존의 엔젤투자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이 초기 스타트업에게 제공하지 못하던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영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액셀러레이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신진오, 2018).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산업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일정 기간 보육을 통해 투자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캐피탈과 차별성을 갖는다(정문수, 2023). 액셀러레이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민간주도형과 정부주도형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주도형 액셀러레이터는 개인이나 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설립·운영되며, 정부주도형 액셀러레이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설립·운영한다. 액셀러레이터라는 개념과 운영의 역사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생태계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Drori & Wright, 2018). Hallen et al.(2020)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참여한 스타트업과 참여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비교하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보다 빠르게 창업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와 관련된 국내외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창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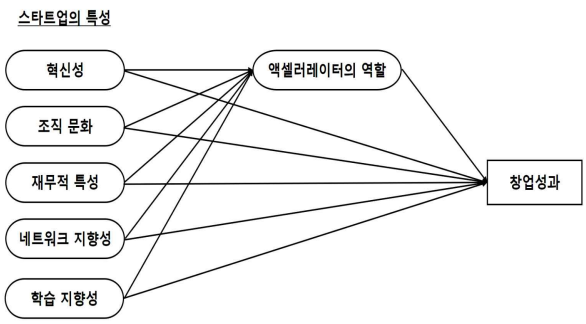
창업성과는 생산성, 고객만족도, 서비스 향상, 목표 달성 등과 같이 조직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얻은 결과물이다(Burke & Litwin, 1992).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는 스타트업이 효율적으로 스타트업을 경영 하였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 기준으로, 스타트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현황을 평가하고 스타트업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이다(Parasuraman et al., 1994).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해석과 분석 요인이 다양하며, 재무적/비재무적 지표,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승배, 2013). Cooper(1993)는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는 새롭게 제안한 모형에서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 특성, 창업과정, 초기기업 특성과 환경을 제시하며 이론적인 틀과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업성과는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로 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재무성과와 이익상승률 등의 객관적인 성과와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력, 신제품의 개발 진행 정도, 외부의 평판 등의 주관적인 성과를 사용하기도 한다(최재성, 2013).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매출액과 같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성과보다 직원의 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Stuart & Abetti, 1987). 특히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매출, 수익, 시장점유율 등이 저조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적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성과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김상진·한진수 2007). 비재무적 성과는 재무적 성과의 선행지표이므로(Behn & Riley, 1999), 스타트업의 창업성과를 측정할 때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측정 보다 장기적인 비재무적 성과측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지성권·김숙정, 2007).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스타트업의 성장에 액셀러이터의 역할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창업자의 역량보다 조직역량 관점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과 학습 지향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이 창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문선 외(2012), 정대용·양준환(2008), 진홍·차완규(2020), Neubert(2017), Kenny & Fahy(2013), George(2005), 등의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스타트업의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스타트업의 특성 중 조직문화는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스타트업의 특성 중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스타트업의 특성 중 네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스타트업의 특성 중 학습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 간의 관계에서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를 추론하여 설정하였다.

김영범·양동우(2021)는 선행연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중 교육과 멘토링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 달성을 위한 혁신성에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으며, 투자 지원은 혁신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진한 외(2020)는 창업보육기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핵심역량을 완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원진 외(2012)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 중 하나인 외부투자금의 활용이 많을수록 창업성과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배영임(2016)은 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네트워크 지원이 입주기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기혁 외(2019)는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게 효과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타트업이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는 스타트업이 학습 지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액셀러레이팅을 받는 제한된 기간내에 불필요한 학습은 오히려 성과 창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설 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1: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2: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조직문화와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3: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4: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5: 액셀러레이터 역할은 스타트업의 학습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 이동기(2022) 등의 선행연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액셀러레이터 역할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연구 방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실증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은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설문지, SNS 및 엔트러스트 서베이를 통해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302개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3.0을 이용하였으며,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표 1>에서 제시한 7개의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들을 각각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구조방정식모형 소프트웨어인 IBM의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표 1> 측정항목

변수	측정 항목	근거
혁신성	1)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시도 여부 2) 창의적이고 새로운 업무 처리 방법 추구 여부 3) 기업을 창의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4)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 도입 증가 여부 5)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법 모색 여부	양희종 (2021)
조직문화	1)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직종 간 서로 융통성있게 조정하는지 여부 2) 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 간, 직위 간 원활하게 협조하는지 여부 3) 업무처리, 절차 등의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4) 타 부서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지 여부 5) 동료 간(같은 부서, 팀원 등)에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6) 명백한 비전(목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7) 회사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개발, 제안, 개인적인 시간 할애를 원하는지 여부 8) 상호 간의 동의를 구해 목표를 확정하는지 여부 9)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새로운 업무절차를 모색하는지 여부 10)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된 업무조직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1) 상세한 업무처리지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12)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김영곤 (2020)
재무적 특성	1) 사업에 필요한 재무적 자원 조달이 쉬운지 여부 2) 내부적인 자금의 조달이 쉬운지 여부 3) 외부 차입 등 자금확보가 쉬운지 여부 4)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가 쉬운지 여부 5) 신규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원 조달이 쉬운지 여부	이동기 (2022)
네트워크 지향성	1) 주변 거래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3) 다른 전문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4) 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김순한 (2018)
학습 지향성	1) 개인의 학습능력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수단 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2) 개인학습이 회사발전의 핵심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3) 구성원들의 학습을 비용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4) 개인학습을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는지 여부 5) 학습을 중단하면 개인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윤경희 (2021)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 고객과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부 2)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 여부 3)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련시장 진출전략 수립 노력 여부 4)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여부 5)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제품·기술의 실증 테스트 기회를 얻기 위한 노력 여부 6) 기관·단체의 지원으로 잠재적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여부	이동기 (2022)
창업성과	1) 거래처 수가 증가하는지 여부 2) 고객만족도 및 고객 확보율이 높아지는지 여부 3)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지 여부 4) 회사에 대한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여부 5) 동종기업에 비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지 여부	이준구 (2021)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표 2>와 같으며, 리커트 척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 항목을 측정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참고문헌
혁신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정도	권재현(2008) 양희종(2021)
조직문화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체계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신념, 가치 등을 기반으로 행하는 업무처리 기준과 방식	신혜숙(2014) 고유민(2017) 김영곤(2020)
재무적 특성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내부 자금 혹은 외부 자금 유치 방법 및 확보 방법	유재훈(2011) 이동기(2022)
네트워크 지향성	파트너, 고객, 전문가, 정부 등 유관기관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정도	김현미(2015) 김순한(2018)
학습 지향성	조직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학습을 장려하고 노력하는 정도	Baker & Sinkula (1999) 윤경희(2021)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는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활동하는 액셀러레이터의 업무	Cohen & Hochberg (2014) 이동기(2022)
창업성과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내부적 자원과 외부적 자원 등을 투입하여 얻은 노력의 결과 정도	Hallen et al. (2020) 이준구(2021)

Ⅳ.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은 수도권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에 소재한 스타트업 창업가와 임직원들 302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163명(54.0%), 여자 139명(46.0%)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 37명(12.3%), 30대 115명(38.1%), 40대 89명(29.5%), 50대 44명(14.6%), 60대 이상 17명(5.6%)으로 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의 경우 고졸 이상 38명(12.6%), 대졸 이상 221명(73.2%), 대학원졸 이상 43명(14.2%)으로 대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수의 경우 5인 미만 53명(17.5%), 10인 미만 44명(14.6%), 30인 미만 70명(23.2%), 50인 미만 41명(13.6%), 50인 이상 94명(31.1%)으로 50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의 경우 서울 138명(45.7%), 경기/인천 91명(30.1%), 강원도 3명(1.0%), 충청도 9명(30.%), 전라도 9명(3.0%), 경상도 47명(15.6%), 제주도 5명(1.7%)으로 서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기간의 경우 1년 미만 14명(4.6%), 3년 미만 41명(13.6%), 5년 미만

67명(22.2%), 7년 미만 40명(13.2%), 7년 이상 140명(46.4%)으로 7년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분야의 경우 ICT 29명(9.6%), 기계/전자 57명(18.9%), 의료/바이오 19명(6.3%), 지식서비스 40명(13.2%), 화학/소재 19명(6.3%), 문화/콘텐츠 27명(8.9%), 기타 111명(36.8%)으로 기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경우 있다 104명(34.4%), 없다 198명(65.6%)으로 없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희망의 경우 있다 165명(54.6%), 없다 137명(45.4%)으로 있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 지원 142명(47.0%), 공간 지원 12명(4.0%), 판로 지원 38명(12.6%), 교육 지원 41명(13.6%), 전문 멘토링 지원 33명(10.9%), 네트워크지원(교류) 36명(11.9%)으로 투자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AMOS SEM에서 성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으로 통제 변수를 구분하여 재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진행 했을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관계에서 (β=-0.501, $p<.01$,) 부(-)의 채택과 (β=-0.295) 기각으로 네트워크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의 관계에서의 (β=0.527, $p<.05$) 정(+)의 채택과 (β=-0.275)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습지향성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의 (β=-0.036) 기각과 (β=0.169, $p<.05$) 정(+)의 채택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의 (β=0.19, $p<.01$) 정(+)의 채택과 (β=0.097)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을 통제 변인으로 진행 했을 경우,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혁신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147) 기각과 (β=0.618, $p<.01$) 정(+)의 채택으로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023) 기각과 (β=-0.474, $p<.05$) 부(-)의 채택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588, $p<.1$) 정(+)의 채택과 (β=0.107) 기각으로 분석되었고 학습지향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065) 기각과 (β=0.492, $p<.01$) 정(+)의 채택으로 조직문화와 창업성과의 관계에서는 (β=0.409, $p<.05$) 정(+)의 채택과 (β=0.101)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β=0.293) 기각과 (β=0.565, $p<.01$) 정(+)의 채택으로 엑셀러레이터의 역할과 창업성과의 관계에서의 (β=0.194) 기각과 (β=0.17, $p<.01$) 정(+)의 채택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을 통제 변인으로 진행 했을 경우,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조직문화와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간의 관계에서 (β=-0.375, $p<.05$) 부(-)의 채택과 (β=-0.255) 기각으로 조직문화와 창업성과간의 관계에서 (β=0.353, $p<.01$) 정(+)의 채택과 (β=0.062) 기각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β=0.295) 기각과 (β=0.619, $p<.01$) 정(+)의 채택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163	54.0
	여자	139	46.0
연령	20대	37	12.3
	30대	115	38.1
	40대	89	29.5
	50대	44	14.6
	60대 이상	17	5.6
최종학력	고졸 이상	38	12.6
	대졸 이상	221	73.2
	대학원졸 이상	43	14.2
임직원 수	5인 미만	53	17.5
	10인 미만	44	14.6
	30인 미만	70	23.2
	50인 미만	41	13.6
	50인 이상	94	31.1
사업장 소재지	서울	138	45.7
	경기/인천	91	30.1
	강원도	3	1.0
	충청도	9	3.0
	전라도	9	3.0
	경상도	47	15.6
	제주도	5	1.7
창업기간	1년 미만	14	4.6
	3년 미만	41	13.6
	5년 미만	67	22.2
	7년 미만	40	13.2
	7년 이상	140	46.4
사업분야	ICT	29	9.6
	기계/전자	57	18.9
	의료/바이오	19	6.3
	지식서비스	40	13.2
	화학/소재	19	6.3
	문화/콘텐츠	27	8.9
	기타	111	36.8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다	104	34.4
	없다	198	65.6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희망	있다	165	54.6
	없다	137	45.4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가장 필요한 것	투자 지원	142	47.0
	공간 지원	12	4.0
	판로 지원	38	12.6
	교육 지원	41	13.6
	전문 멘토링 지원	33	10.9
	네트워크지원(교류)	36	11.9
전체		302	100.0

4.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최종 수집된 데이터(n=302)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하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사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홍세희, 2000). 그리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강현철, 2013).

<표 4>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수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혁신성	혁신1	0.82	0.26	0.914	0.922	0.703
	혁신2	0.862	0.233			
	혁신3	0.849	0.301			
	혁신4	0.793	0.373			
	혁신5	0.808	0.28			
조직문화	문화1	0.762	0.304	0.939	0.948	0.604
	문화2	0.748	0.306			
	문화3	0.716	0.452			
	문화4	0.728	0.352			
	문화5	0.756	0.307			
	문화6	0.798	0.335			
	문화7	0.767	0.422			
	문화8	0.761	0.363			
	문화9	0.767	0.331			
	문화10	0.805	0.333			
	문화11	0.72	0.537			
	문화12	0.699	0.41			
재무적 특성	재무1	0.858	0.263	0.931	0.929	0.723
	재무2	0.847	0.273			
	재무3	0.869	0.251			
	재무4	0.849	0.339			
	재무5	0.857	0.277			
네트워크 지향성	네트1	0.779	0.198	0.859	0.911	0.72
	네트2	0.833	0.166			
	네트3	0.799	0.226			
	네트4	0.718	0.364			
학습 지향성	학습1	0.824	0.313	0.923	0.916	0.687
	학습2	0.813	0.376			
	학습3	0.884	0.233			
	학습4	0.885	0.276			
	학습5	0.803	0.419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엑셀1	0.872	0.305	0.952	0.942	0.729
	엑셀2	0.887	0.299			
	엑셀3	0.897	0.265			
	엑셀4	0.867	0.297			
	엑셀5	0.885	0.238			
	엑셀6	0.849	0.313			
창업성과	성과1	0.709	0.441	0.899	0.914	0.681
	성과2	0.805	0.239			
	성과3	0.838	0.23			
	성과4	0.838	0.295			
	성과5	0.822	0.305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계수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김계수, 2007).

<표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859에서 0.952로 분포되어 권장치(0.6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00).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측정항목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강현철, 2013). 이는 설문 문항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대각선에 표기한 분산추출값의 제곱근 값이 각 요인의 상관 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 개념들 간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표 5>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요인	요인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혁신성	0.838						
조직문화	.800*	0.777					
재무적 특성	.555*	.659*	0.850				
네트워크 지향성	.725*	.801*	.618*	0.849			
학습 지향성	.708*	.748*	.569*	.677*	0.829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714*	.676*	.641*	.667*	.695*	0.854	
창업성과	.750*	.797*	.637*	.778*	.712*	.745*	0.825
평균	3.624	3.658	3.190	3.844	3.446	3.286	3.593
표준편차	.827	.718	.909	.653	.928	1.001	.781

** p<0.01*

4.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 후, 수집된 데이터가 본 연구모형에 적합한지 AMOS를 이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초기 총 42개의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에 대한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에 대한 p값(>=0.05) 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χ^2=1512.591 (df=798), *p=0.000*, χ^2/df=1.895,

GFI=0.803, NFI=0.874, CFI=0.936, RMR=0.04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4.4 연구가설 검증결과

총 302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1269.85 (df=718), *p=0.000*, CMIN/DF=1.769, RMR=0.037, NFI=0.888, CFI=0.948, GFI=0.825, AGFI=0.800, TLI=0.943, IFI(Delta2)=0.948로 나타나, 홍세희(2000)가 제시한 CFI, TLI, RMR 중심의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구분			Estimate	S.E.	C.R.	P
혁신성	→	창업성과	0.023	0.079	0.284	0.777
조직문화	→	창업성과	0.197**	0.097	2.042	0.041
재무적 특성	→	창업성과	0.019	0.038	0.495	0.621
네트워크지향성	→	창업성과	0.52***	0.125	4.174	***
학습지향성	→	창업성과	0.041	0.049	0.827	0.408
혁신성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0.582***	0.132	4.403	***
조직문화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0.306*	0.165	-1.858	0.063
재무적 특성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0.309***	0.064	4.801	***
네트워크지향성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0.296	0.202	1.467	0.142
학습지향성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0.345***	0.083	4.146	***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	창업성과	0.171***	0.043	3.938	***

*** p<0.01, ** p<0.05, * p<0.1

가설검증 결과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스타트업 특성 중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β=0.023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기각되었으며, 조직문화는 창업성과에 β=0.197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는 지지가 되었으며,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β=0.019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β=0.52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4는 지지가 되었으며, 학습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β=0.041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5은 기각되었다.

둘째, 스타트업 특성 중 혁신성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582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는 지지가 되었으며, 조직문화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306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는 지지가 되었다. 또한, 재무적 특성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309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은 지지가 되었으며, 네트워크 지향성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296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학습 지향성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에 β=0.345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5는 지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β=0.171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가 되었다.

4.5.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는 응답자의 자기보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실증연구의 타당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 단계에서 설문 항목에 따른 응답자 분리, 조사시점의 분리 등의 방법을 통해 변수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측정하여 연구설계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과 사후 단계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동일방법편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통계적인 방법으로 Harman의 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전체 변수의 문항을 포함하는 주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 1개가 총 설명력의 50% 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동일방법편의로 인한 오염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Podsakoff et al., 2003).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의 설명력이 22.574%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자료는 동일방법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6. 논의

이상의 가설 검정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트업의 특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스타트업의 특성인 조직문화와 네트워크 지향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는 동적자원기반이론과 내생적 성장이론을 중심으로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간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박덕환(2020)의 선행연구와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는 김상철(2022)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반면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은 창업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동기(2022)의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되는데,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창업 5년 이상의 성장기 혹은 도약기 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며, 약 44%에 달하는 응답자가 30인 이상의 기업에 재직하는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혁신성보다는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부분이 더 창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은 창업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이 매출이 적은 상태에서도 상황에 따라 외부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하는 재무적인 특성이 있지만, 이는 이동기(2022)의 선행연구에서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와 같다. 김상철·동학림(2021)의 선행연구에서 초기 투자지원이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성과에 영향이 없거나 초기 투자 유치 금액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자금 확보를 통해 창업성과를 내는 스타트업의 재무적 특성은 일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한하여 유의미하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상 성장기 혹은 도약기 기업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보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학습 지향성도 창업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지향성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동기(2022)의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되는데,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스타트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1인 다역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30명에 달하는 스타트업 조직에서는 각자의 파트만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전문성을 선호하며, 새로운 업무보다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 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학습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김영범·양동우(2021), 김진한 외(2020), 강원진 외(2012)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반면 네트워크 지향성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철·동학림(2021), 김상철(2022) 등의 선행연구에서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 중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게 네트워크가 창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과 상반되는데, 네트워크는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들에게 성장과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한 스타트업의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네트워크보다는 비즈니스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 지원, 교육 지원, 판로 지원 등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위 결과를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5.1. 연구결과

액셀러레이터에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액셀러레이팅,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특성 하위 구성요소인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네트워크 지향성, 학습 지향성이 창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로는 조직문화와 네트워크 지향성 등이 있었으며,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역시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1.1. 시사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은 스타트업 창업가 개인의 역량과 능력 등 창업가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과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가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경쟁가치모형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차완규(2018)가 경쟁가치모델 관점으로 조직문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문화를 만들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춘근 외(2014), Cohen et al.(2019)의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

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설에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은 네트워크 지향성과 창업성과간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규모 등에 따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선호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스타트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와 기각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의 산업분야 및 성장단계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의 산업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세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과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 지원, 교육 지원, 판로 지원, 네트워크 지원 등이 있으며, 스타트업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금 지원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할 때 투자 지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권용석 외, 2019).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 창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모험자본 성격의 벤처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모험자본 성격의 투자 규모 확대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스타트업의 특성 중 혁신성, 조직문화, 재무적 특성 그리고 학습 지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창업성과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통해 창업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타트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에 안착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업의 요구를 분석하여 민간 분야와 공공분야의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언한다.

5.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첫째, 전국 스타트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나 75% 이상의 응답이 수도권인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설문 응답자 중 창업 기간이 5년 이상인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임직원이 약 60%, 재직 중인 스타트업의 임직원 수를 확인한 결과 3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 비율이 44% 이상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응답자들이 재직 중인 스타트업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안착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기간이 다양한 스타트업을 보다 균등하게 조사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스타트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이러한 설문조사는 응답자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선입견 등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의 설문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사 시기, 조직에 대한 애착과 이해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과 응답자의 자기보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배제할 수 없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가 실증연구의 타당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설문 조사시 설문 항목에 따른 응답자 분리 혹은 조사시점의 분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을 하는 사전 단계에서부터 동일방법편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매개변수가 아닌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창업성과에 효과를 미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

강원진·이병헌·오왕근(2012).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외부자원 활용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7(1), 35-45.

강현철(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한국간호과학회*, 43(5), 587-594.

고유민(2017). *호텔 조직문화가 직원역량 및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조절변수: 호텔경영형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권용석·황보윤·이종훈(2019). 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1), 33-46.

권재현(2008). *관계지향, 학습지향, 그리고 혁신성이 항만의 공급사슬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계수(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김문선·김수정·남경현(2012). R&D 혁신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 연구. *품질영영학회지*, 40(4), 631-640.

김상진·한진수(2007). 기업의 사회자본과 성과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1(4), 67-83.

김상철(2022). *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김상철·동학림(2021). 액셀러레이터 보육 프로그램과 창업가 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1), 319-348.

김순한(2018).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유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영곤(2020). *호텔 조직통합전략이 조직문화와 서비스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김영범·양동우(2021). 액셀러레이팅과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의 스

케일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6(6), 149-175.
김일천·이지우·김종우(2004). 혁신적 업무행동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19(2), 281-316.
김진한·조진형·이세재(2020). 창업가역량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지원이 기술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 역량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43(1), 132-142.
김철희(2022). *기업가 정신과 인적자원 혁신성이 기업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춘근·이충석·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21(5), 63-86.
김현미(2015). *창업기업의 네트워크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나기혁·양대규·바트톨가 알탄채책(2019).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 고찰. *벤처창업연구*, 14(1), 85-99.
남영현·서영욱(2020). 스타트업 특성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공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5(2), 299-313.
남영현(2021). *스타트업 내부특성과 공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덕환(2020). *중소기업의 IT 조직문화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 전문대학원.
박희봉·박순애·김유진(2019).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 재량권부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149-174.
배영임(2016). 창업보육센터 지원서비스와 매니저 역량이 입주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2), 145-155.
신진교·임재현·황수정(2009). 중소기업의 특성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1(3), 73-91.
신진오(2018).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신혜숙(2014). 기업문화가 직무만족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6(6), 415-430.
양희종(2021).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 혁신성,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옥지호·백유진(2015). 벤처기업의 여유자원이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내산업특성의 조절효과. *국제경영연구*, 26(4), 1-35.
유재훈(2011). *혁신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자금조달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윤경희(2021). *최고경영자(CEO)의 여성적 리더십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혁신성의 매개효과와 학습 지향성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윤성차(2018).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학습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이광철(202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가지향성, 전략적 네트워크 그리고 혁신성과*.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이경화(2023).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가 이용자 중심 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이동기(2022). *스타트업의 특성과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국제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상길(2018). 진취성, 지각된 유용성 및 학습 지향성이 업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6), 167-175.
이상묵(2018). 기업간 네트워크가 시장개척 성과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 *전문경영인연구*, 21(2), 233-254.
이숙영·문송철(2011). 학습 지향성, 시장지향성, 기업가지향성이 조직문화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전략학회*, 18(2), 109-134.
이승배(2013). *중소벤처기업 창업자의 사회적 자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이주연(2020). *환경요인, 조직양면성 및 성과: 브리콜라주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준구(2021). *창업가 역량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창은(2021).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성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태규(2021). 항공사 직원의 혁신 행동과 학습 지향성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5(1), 333-351.
이해광(2012). *학습 지향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정대용··양준환(2008).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및 네트워킹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가와 중국기업가의 네트워킹 특성을 중심으로 한 비교. *한국창업학회지*, 3(2), 43-69.
정문수(2023). *액셀러레이터 투자결정요인 연구: 비즈니스모델 관점에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혜윤(2022). *벤처캐피탈 투자와 스타트업 자금조달 성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지성권·김숙정(2007). 벤처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측정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10(2), 25-48.
진홍·차완규(2020). 중소·벤처기업의 조직역량이 시장적응역량을 매개로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6), 115-133.
차완규(2018). *조직문화, 특허전략 및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경쟁가치모델 관점*.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채주석·박상석(2019). 조직내외적 상황요인에 따른 조직민첩성과 경영성과간의 관계. *경영교육연구*, 34(4), 293-314.
최재성(2013). *창업자의 영업역량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최중빈(2019). *액셀러레이터의 관계효익이 서비스 관계질과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19(1), 161-177.
Auerswald, P. E., & Branscomb, L. M.(2003). Valleys of death and Darwinian seas: Financing the invention to innovation transi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28(3), 227-239.
Bae, Y. I.(2016). Impact of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and Manager's Capabilities on the Start-Up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2), 145-155.
Baker, W. E., & Sinkula, J. M.(1999). The synergistic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27(4), 411-427.
Behn, B. K., & Riley, R. A.(1999). Using Nonfinancial Information to Predict Financial Performance: The Case

of the U.S. Airline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14(1), 29-56.

Bititci, U. S., Martinez, V., Albores, P., & Parung, J.(2004). Creating and managing value in collaborative networks. *International Journal of Physical Distribution & Logistics Management*, 34(3/4), 251-268.

Burke, W. W., & Litwin, G. H.(1992). A causal model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change. *Journal of Management*, 18(3), 523-545.

Calantone, R. J., Cavusgil, S. T., & Zhao, Y.(2002).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31(6), 515-524.

Cameron, K. S., & Quinn, R. E.(1999).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framework.* Boston: Addison-Wesley.

Cha, W. K.(2018). *Structur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Patent Strategy and Business Performance: Focus on Competing Values Mode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Chae, J. S., & Park, S. S.(2019).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Agi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Dynamics, Labor Union Presence.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4(4), 293-314.

Chen, H., & Cha, W. K.(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y's Organizational Capability on Corporate Performance through Market Adaptation Capabil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115-133.

Chi, S. K., & Kim, S. J.(2007).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ment in Venture Firm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0(2), 25-48.

Choi, J. B.(2019). *A Study on the Effect of Relational Benefits of Accelerators on Relationship Quality and Long-term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active Contents, Inha University.

Choi, J. S.(2013). *Impact of Founder's Sales force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of Hoseo University.

Christiansen, J. D.(2014). *Start-Ups' view: What do founders get from attending an accelerator program.* Accelerator Assembly report.

Chung, D. Y., & Yang, J. H.(2008).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e and Networking on Firm Performance: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China SM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3(2), 43-69.

Clarysse, B., & Bruneel, J.(2007). Nurturing and growing innovative start-ups: the role of policy as integrator. *R&D Management,* 37(2), 139-149.

Cohen, S. L., Bingham, C. B., & Hallen, B. L.(2019). The Role of Accelerator Designs in Mitigating Bounded Rationality in New Ventur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64(4), 810-854.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SSRN Electronic Journal.*

Cooper, A. C.(1993). Challenges in Prediction New Firm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3), 241-253.

Deal, T. E., & Kennedy, A. A.(1982). *Corporate Cultures: The Rites and Rituals of Corporate Life.* Boston: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Drori, I., & Wright, M.(2018). *Accelerators: Characteristics, trends and the new entrepreneurial ecosystem.*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Fornell, C., &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Ganesan, S.(1994). Determinants of longterm orientation in buyer-seller relationships. *Journal of Marketing*, 58(2), 1-19.

George, G.(2005). Slack resources and the performance of privately held firm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4), 661-676.

Grant, R. M.(1991).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3), 114-135.

Groysberg, B., Lin, E., & Johnson, W.(2019). What to Do When Industry Disruption Threatens Your Career. *MIT Sloan Management Review*, 60(3), 57-65.

Hallen, B. L., Cohen, S. L., & Bingham, C. B.(2020). Do accelerators work? If so, how?. *Organization Science*, 31(2), 378-414.

Hong, S. H.(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9(1), 161-177.

Hsu, F. M., Chen, T. Y., & Huang, T. Y.(2007). The effects on the relationship learning from relationship enhancement activities. *Journal of Relationship Marketing*, 6(1), 89-107.

Hult, G. T. M., Ketchen Jr, D. J., & Nichols Jr, E. L.(2003). Organizational learning as a strategic resource in supply managemen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1(5), 541-556.

Hurley, R. F., & Hult, G. T. M.(1998). Innovation, Market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An Integration and Empirical Examination. *Journal of Marketing*, 62(3), 42-54.

Jiménez-Jiménez, D., & Sanz-Valle, R.(2011). Innovatio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4(4), 408-417.

Jung, H. Y.(2022). *A Study on the Analysis of Start-up Financing Performance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Jung, M. S.(2023). *A Study of Investment Determinants of Acceler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Business Mode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ang, H. C.(2013). A Guide on the Use of Factor Analysis in the Assessment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Kang, W. J., Lee, B. H., & Oh, W. G.(2012). 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n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35-45.

Kenny, B., & Fahy, J.(2013). The role of tie strength, relational capability and trust in the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high tech SMEs. *The IMP Journal,* 7(3), 188-203.

Kim, C. G., Lee, C. S., & Kim, J. S.(201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21(5), 63-86.

Kim, C. H.(202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Human Resource Innovation upon Entrepreneur's Business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s of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im, G. S.(2007). *(New Amos 7.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oul: Hannarae Publishing Company.

Kim, H. M.(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network orientation of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Kim, I. C., Lee, J. W., & Kim, J. W.(2004). Determinants of Innovative Work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2), 281-316.

Kim, J. H., Cho, J. H., & Lee, S. J.(2020).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s on Corporate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43(1), 132-142.

Kim, M. S., Kim, S. J., & Nam, H. J.(2012).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 between R&D Innovation Capability and Performance in Knowledge-Based Service Firm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40(4), 631-640.

Kim, S. C., & Dong, H. L.(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ccelerator Programs and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1), 319-348.

Kim, S. C.(2022).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of Accelerator Portfolio: Focusing on Accelerator Incubation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Kim, S. H.(2018). *The Effect of SMEs Network Ties on Market Performance: Focused on the Moderating Role of Government Network.*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Kim, S. J., & Han, J. S.(2007). Relationship between the Hotel's Social Capital and Enterprise Performance. *Korea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21(4), 67-83.

Kim, Y. B.,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accelerating and entrepreneurship on the scale-up of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6), 149-175

Kim, Y. G.(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Integration Strategy of Hotel Companies on Organizational Culture and Service Innova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Ko, Y. M.(2017).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Hotel Industry Influencing Employee Competence and Customer Orientation: Management Type as a Moderating Variabl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Sejong University

Kotter, J. P.(1996). Why transformation efforts fail. *Th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13), 170.

Kwon, J. H.(2008). *Effect of Relationship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veness on the Supply Chain Performance of a Port: Evidence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Trading Port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Kwon, Y. S., Hwangbo, Y., & Lee, J. H.(2019). Key Factors Affecting a Startup Entrepreneur's Choice of Accelerat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33-46.

Lee, C. E.(2021). *A Study on the Policy Support Plan for the Success of Start-up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Lee, D. K.(2022).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the role of Accelerators on the Internationalization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Lee, H. K.(2012).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ultur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Lee, J. K.(202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Competency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Start-up Compan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ocal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Rol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Hoseo University.

Lee, J. Y.(2020). *Environmental Factors, Organizational Ambidexterity and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f Bricolag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Lee, K. C.(202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trategic networks, and innovation performance in technology-based SME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he Catholic University.

Lee, K. H.(2023).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on Client-Centered Practi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Mokwon University.

Lee, S. B.(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Social Capital on Start-up Performances mediated by Nascent Entrepreneur's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Lee, S. G.(2018). The Influence of Proactiveness, Perceived Usefulness and Learning Orientation on Work Commitm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6), 167-175.

Lee, S. M.(2018). The Bi-dimensional Effects of Inter-firm Networks on the Performance of Proactive Innovations.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1(2), 233-254.

Lee, S. Y., & Moon, S. C.(2011). The Relation between Orientation of Learning, Marketing, Entrepreneurs, and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8(2), 109-134.

Lee, T. G.(2021). Effects of Innovation behavior and Learning Orientation of Airline staff on Job Performances.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25(1), 333-351.

Maggio, P. J., & Powel, W. W.(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160.

Nahapiet, J., & Ghoshal, G.(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Nam, Y. H., & Seo, Y. W.(2020). The Effects of Startup Characteristics on Innovation Capability: Focusing on the Partnerships with Public Enterprises.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15(2), 299-313.

Nam, Y. H.(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Startup and the Relationship with Public Enterprises on Management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Neubert, M.(2017). Lean Internationalization: How to Globalize Early and Fast in a Small Economy.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7(5), 16-22.

Ok, J. H., & Back, Y. J.(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lack Resources of Venture Firms and Internationalization: Moderating Effects of Domestic Industr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6(4), 1-35.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1994). Alternative Scales for Measurin Service Quality: A Comparative Assessment based on Psychometric and Diagnostic Criteria. *Journal of Retailing*, 70(3), 201-230.

Park, D. W.(2020).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based Organizational Culture on the Performance of SMEs: Focusing on the (Dynamic) Resource Based Theory and the Endogeneous growth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Park, H. B., Park, S. A., & Kim, Y. J.(2019).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ing on Fairness, Ethics, Innovation, and Discretion.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3(2), 149-174.

Penrose, E.(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Pisano, G. P.(2019). The Hard Truth About Innovative Cultures. *Harvard Business Review*, 97(1), 62–71.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Ra, K. H., Yang, D. G., & Altantsetseg, B.(2019).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Accelerators on Startups: A Network-Based Approach.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85-99.

Shin, H. S.(2014). The Effect of Corporate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6(6), 415-430.

Shin, J. K., Im, J. H., & Hwang, S. J.(2009). SMEs Characteristic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ase of Manufacturing SMEs in Daegu Region.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31(3), 73-91.

Shin, J. O.(2018).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Startup Accelerat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Slater, S. F., & Narver, J. C.(1995). Market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59(3), 63-74.

Stuart, R. W., & Abetti, P. A.(1987). Start-up venture: Toward the prediction of init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3), 215-230.

Tylor, E. B.(1958). *The origins culture.* Manhattan: Harper and Row.

Yang, H. J.(2021). *The Effect of Strategic Orienta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Innovativeness, and Corporate Performanc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Ulsan.

Yoo, J. H.(2011).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Funding Patterns of Innovative Firm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Yoon, S. C.(2018). *The Impact of Learning Orientation of CEO on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The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Learning Orientatio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e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Yun, K. H.(2021). *The Effect of CEO's Feminine Leadership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e Mediating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Orient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tudy on Effects of Startup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Focusing on the Intermediary Effects of the Accelerator Role

Yongtae Kim*
Chulmoo Heo**

Abstract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long with the expans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ment in startup discovery and funding,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tartups seeking to generate outstanding results based on innovative ideas. As successful startups serve as role models, the number of aspiring entrepreneurs preparing to launch their own startups continues to increase. However, unlike entrepreneurs who challenge themselves with serial entrepreneurship after experiencing success, early-stage startups face various challenges such as team build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fundraising. Accelerators play a dual role of mentor and investor by providing education, mentoring, consulting, network connection, and initial investment activities to help startups overcome various challenges they face and facilitate their growth.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and thei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nd analyzed whether accelerator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rtup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 total of 11 hypotheses were propos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02 startup founders and employees located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for empirical research. SPSS 23.0 and Amos 23.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factors such as innovation, organizational culture, financial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orientation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tartups, rather than having a direct impact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re linked to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rough the role of accelerators. By analyzing the impact factors of startup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is study presents research on the role of accelerators and provid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investment and differentiated acceleration programs, enabling startups to seize the market and grow stably in the market.

Keywords: *Startup characteristics, innovativeness, organizational culture, financial characteristics, network orientation, learning orientation, role of accelerator,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First Author, Ph.D. Candidate, Hose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mykim5050@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Hose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cmheo@hoseo.edu